
2021년 제24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6. 11. ~ 6. 1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6. 12.	시청률	0.141

【총 평】

국가가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아람회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전하였다. 당시 국가는 권력 지배자에 대한 반향 투쟁과 군부정치에 대한 투쟁은 억압하고 무력을 앞세워 잠재우려 했던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피해자가 속출하였으나 은밀히 고문하고 형벌을 통해 공권력으로 구속하였던 사실에 대해 자초지종을 세밀히 파헤쳤다.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발전과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다시금 알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 및 내용】

민주정치 발전과 통일문제를 논하던 교사와 학생들의 모임을 신군부 공안당국의 삼엄한 경계와 조작으로 고통당해 힘겹게 살아온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인 '아람회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 사제지간의 모임을 반국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고문한 공안당국의 만행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을 통해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깨어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국가발전과 민주사회로의 갈망을 위한 외침들을 반국가단체 모임 활동으로 규제하고 탄압하였다.

'아람회 사건'의 시발은 전두환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전쟁을 불사한 상황과 같이 처벌한 만행이 계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아람회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주인공들의 사연을 다루었다.

또 아람회의 수장 역할로 몰린 주인공이 어떻게 간첩으로 오인 받았는지 그 배경을 밝혔다. 아람회 회원인 세 명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 날의 사건이 어떻게 점화되었는지를 밝히고 고초를 겪었던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 당시 처참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학생들 중 한 명은 1981년 대전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국가행위로서 인권을 유린당했지만 누구도 그의 인생을 보상해주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견뎌내고 있음을 전하였다. 또 보문산 대공분실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전하여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하게 하였다. 시국의 어려움을 논하고 정권의 극악무도한 탄압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바로 알리려는 사람들의 미래를 막아놓기까지 하였던 모든 과정에 대해 전하였다.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당시 사건을 법원의 침묵과 사법 정의 시스템의 부재가 만들어 낸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진실화해위의 규명을 통해 뒤늦게라도 죄명을 벗고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만이라도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 공권력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사법적 정의가 얼마만큼 올바른 판단과 법적 적용을 냉철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논제를 던져주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6. 12.	시청률	0.267

【총 평】

‘150억 들여 꾸민 국내 1호 민간정원’ 편에서는 버려진 산을 대한민국 민간 정원 1호로 만든 주인공의 귀촌 사연이 펼쳐졌다. 260개의 분재를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은 귀촌 11년차로, 꽃과 나무가 선물하는 볼거리와 행복을 전해주었다. 온실에서 꽃모종을 키워 정원에 식재하는 과정의 모습에서 주인공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버려진 산을 멋진 정원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일상으로 성큼 데려왔다’라는 소개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장이 핵심이었던 것 같다.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이 곳을 찾은 방문객과 소통하고 싶은 주인공의 바람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드러났다.

【구성 및 내용】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서 민간 정원을 운영 중인 주인공의 사연을 소개하였다.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주인공의 인생 이야기와 정원사로서의 삶, 정원 문화 확산에 힘쓰는 이유 등 그의 철학이 방송에 잘 드러났다. ‘민간정원 1호’라는 수식어가 눈길을 끌었고, 개인이 사비를 들여 정원을 꾸미고 운영해 나간다는 점 자체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노력과 정성으로 가꾼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의 아름다운 풍광이 장면마다 전해졌다.

대체로 주인공의 하루 일과를 쫓아가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원 내부의 곳곳이 빠짐없이 소개가 되어 볼거리도 풍부하였다. 이름 모를 꽃이나 나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주인공의 정원에 대한 애정도 느낄 수 있었다. 정원 설치 과정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친환경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된 이유 등을 언급하는 대목도 인상적이었다. 자연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원을 가꾸고, 폭포를 만들기 위해 온양에서 수많은 돌을 가져와 곳곳을 만들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2만평 면적의 정원에形形色색의 수많은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뤄 정원의 빛깔 또한 인상 깊었다. 허리 한번 펴지 않고 꽃을 심고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직접 이송해온 나무들로 만들어낸 탐라식물원에도 주인공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단순한 정원이 아닌 치유와 체험을 겸비하여 운영되는 정원으로, 아버지를 도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도 소개되었다. 장미꽃 식재를 놓고 함께 의논하고 정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가족에게서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살필 수 있었다. 제조업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친환경에 대해 관심 많았던 주인공은 일상에 정원문화가 뿌리내리고, 정원문화가 확산과 발전이 되도록 기여하였다. 꽃이 인간에게 행복의 선물로 즐거움과 마음을 치유를 준다는 주인공의 가치관도 인상 깊었다. 1평 정원부터 시작해 정원 만들기를 보편화하는데 선도하고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멘토링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전하였다. 인근 학교에 수선화와 튜립의 식재를 도와주러 나가서 꽃과 나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후계자를 양성하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이 잘 나타났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1. 6. 12.	시청률	0.179

【총 평】

‘그라운드’에 울리는 함성소리-서울 강서구’편에서는 세계적인 선수를 꿈꾸며 땀 흘리는 야구 꿈나무들의 열정과 도전,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 등을 영상과 사운드에 진솔하게 담아내었다. 못다 이룬 야구 선수의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는 아버지, 서로 격려를 보내며 야구를 하는 아이들, 선수에게 맞는 훈련법을 제시하는 감독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력의 가치를 일깨우고 이들을 응원하는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지지의 메시지도 덧붙여 감동을 더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하고 짓눌려있는 시청자들에게 어린 선수들을 통해 극복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린 선수들의 의지가 사운드와 비주얼을 통해 디테일하게 살아났다.

【구성 및 내용】

서울 도심의 리틀야구단에서 미래의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전해주었다. 어린 선수들의 이야기를 밀도 있게 그려냈고 인터뷰를 통해서 야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잘 표출해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이들을 진심으로 지도하는 감독 등 스태프,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학부모의 모습으로 구성했다. 도입부에서 선수들의 이야기에 더해 프로필을 소개했는데 센스 있는 효과처리가 돋보였고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모여 야구에 흥미를 가지고 체계적인 단계로 서로 간 협동심, 단결력을 키운다. 아이들은 야구에 대한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동시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임한다. 아이들은 지고 있을 때도 서로 격려해주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투수들도 최선을 다해 던지지만 맞아 나간 공도 수비가 받아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 야구를 위한 다짐들을 보면 아이들은 단순히 어린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중, 인정해주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타격 훈련으로 야구공을 치는 경쾌한 소리, 서로를 격려하는 파이팅 소리, 거친 숨소리, 그라운드에 울려 퍼지는 피리 연주 소리 등 사운드멘터리로서의 흡인력을 높였다. 메이저리그 유명 선수가 꿈이라는 자식들의 열정과 꿈을 위해 뒷바라지에 나선 부모의 애절한 심정이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다. 자연 속의 소리, 특정 장소의 소리도 좋지만 아이들, 야구선수라는 특정 주체로서의 소재를 부각한 것이 문득 새롭게 느껴졌다. 내레이션이 전혀 없이 사운드와 영상, 자막으로 이끈 포맷이 신선하고 흡인력을 높이는 긍정적 요소였다. 특히 자막의 무한불성(無汗不成), 질주(疾走) 등 한글과 한자 병기가 키워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땀으로 범벅된 다부진 얼굴의 표정,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패기, 다양한 액션 오버랩과 피리 연주가 여운을 느끼게 했다.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고 ‘꿈’, ‘희망’, ‘도전’, ‘용기’ 등의 긍정적 메시지 전달을 통해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6. 12.	시청률	0.003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125회에서는 경색된 한반도의 긴장 완화 과제 분석,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 전망과 함께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문제, 누가 북한 2인자로 등장할 것인가, 스포츠 교류로 남북에 훈풍이 불었던 사례 등 시청자들의 관심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진행도 몰입감을 높였다. 북한 전문 패널의 깊이 있는 전망 분석, 전문가의 경험을 통한 제언 등이 프로그램의 메시지 전달력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이슈 텔링에선 축구를 통해 남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활로를 열자는 제언을 담아냈는데 현재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상황과 연계해볼 때 큰 의미가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친절한 한반도 시사 토크’에서는 최근 2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을 모은 김정은 위원장의 새 행보와 함께 김정은 대리인 제도 신설과 2인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다뤄 관심을 유발했다. 최근 초점이 되고 있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짚어보고 6월이 골든타임인 이유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의 의미 등을 깊이 있게 살펴본 기획이 돋보였다.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축소 및 연기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하고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대선준비와 관련하여 대북 정책 추진력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인 6월이 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 중재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조차 북한과의 대화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궁금한 한반도 이슈 텔링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 스포츠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스포츠 교류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내용으로 관심도를 높였다.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체육 강국, 특히 축구 강국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부터 내부 결속의 일환으로 축구를 활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북한은 1부부터 3부 리그까지 운영하고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설립하여 해외 축구선수를 초빙하고 우수한 선수는 유럽으로 유학까지 지원한 바 있다. 과거 축구 교류로 한반도 관계가 좋아졌던 사례를 짚어보고 스포츠 외교의 효과를 알아본 것은 적절했다. 이에 스포츠 교류는 경색된 남북 관계에 있어 이전 평창올림픽 참여처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준비 중인 남북의 스포츠 교류로는 강원도가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동계스포츠 취약 국가 50여 개국을 초청해서 강원도 평창부터 북한의 원산까지 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는 아이들의 스포츠이기에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난 극복부터 남북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1. 6. 13.	시청률	0.027

【총 평】

경제 소비 제도 개선 사례, 위기 채무자 보호 및 구제 혜택 정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소개해 시청자에게 근접성 높은 정보를 전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 사례를 소개하여 더욱 가깝게 느껴졌고 사회적 배경과 불편 사례, 개선된 제도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모바일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된다.’는 점을 일깨워 소비자 주권과 정책화를 강조한 점이 뛰어났다.

【구성 및 내용】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14회는 ‘경제 소비제도 개선’과 ‘위기 채무자 보호와 구제 혜택’을 다뤄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정보를 전달하였다. ‘경제 소비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국민생각함과 모바일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위기 채무자 보호와 구제 혜택’은 개인 워크아웃, 신용도우미 앱 등에 대해 다루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 2조원 대의 시장규모로 성장했지만 미청구액 및 소멸금액,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이 상당수라는 정보를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전세계 구독 경제 시장 성장세를 배경으로 모바일콘텐츠 피해 민원 사례를 제시하고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된 제도를 논리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렇듯 개선된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국민이 문제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정을 권고하고 정책화로 이어져 개선됐음을 알리는 점도 인상 깊었다.

‘위기 채무자 보호와 구제혜택’에 관해서는 남편의 사고사로 인한 보조금을 회사가 가로챈 외국인 여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도움을 준 사례를 소개했다. 또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로 연간 4,700여건의 피해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국내 사금융, 대부업의 이용규모가 상당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불법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법률 전문가를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다중채무자의 급증으로 개인의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도 소개하였다.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다음날부터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신용 공공기록 정보가 조기 삭제되는 이점도 함께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과 함께 개선 사례, 제도 활용 방법 등을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와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또 최근 모바일 상품권의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코로나19 경제난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등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관심을 유발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6. 13.	시청률	0.007

【총 평】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14회는 “지역균형 뉴딜 차별화 전략”에 대해 방송하였다.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의 특성과 지역주도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잘 풀어나갔다.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의 지역 균형 뉴딜의 상생 추진 관계를 충분히 언급하고 설명하였다.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정책 담당관을 비롯한 각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뉴딜의 개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시의적절하고 국민적 홍보에 필요한 부분을 잘 전하고 있다.

【구성 및 내용】

지역균형뉴딜은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 쇠퇴의 운명에 놓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시켜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전하였다.

과거 서울 중심 수도권에 상장사 집중과 수도권 대학 집중으로 젊은이들이 서울로 과밀화되었으며, 첨단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과밀화 집중 현상이 점차 해체될 상황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해 지난 50여년간의 산업구조적인 시대적 배경을 통해 전달하여 공감형성을 하였다.

지역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운명이 악화되거나 해체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집중은 주택가격 및 교육비 상승 등으로 젊은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 등의 부작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국가발전 저해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가겠다는 선언이 나올만한 충분한 배경 설명을 전하였다. 지역주민 삶에 있어서 스마트 개념을 접목시켜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등의 만족도를 높게 하여 지역 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속화 될 것임에 기대를 갖게 하였다. 경북 문경의 고택을 활용한 '화수헌'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청년들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젊은 청년들의 카페 운영은 지역주민들에게도 고무적이었고 지역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 안정적인 기업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유형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의 여러 유형의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정보를 전하여 대세는 뉴딜로 국가 모든 산업이 편제되고 있음을 전하였다. 그 예로 전남 만재도와 경기도를 소개하였다. 만재도는 육지에 나가려면 여러 섬을 거쳐 6시간이 걸렸었는데 어촌 뉴딜 사업으로 불편시설을 개선해 한평생 상상도 못했던 시간인 2시간 30분이면 다녀올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고 한다. 경기도는 공공 배달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현장에서 전달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지역균형 맞춤 전략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6. 13.	시청률	0.004

【총 평】

‘코로나 방역 모범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편은 한미간 코로나 백신과 관련하여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 문대통령의 방미 상황에서 합의된 사항을 영상과 함께 구체적으로 전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준비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준비 물량 확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전세계적인 협약 사항을 토대로 신뢰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국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회자되는 근거 없는 입소문에 대해 깨끗이 씻어버리고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하였다.

【구성 및 내용】

이번 방송은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지 전염병 예방국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될지를 자세히 다루었다.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제조 현황과 코로나19 백신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접종 예약 정지 관련 소문과 진실과 백신 도입과 공급 현황 등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한미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백신 생산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반도체 등의 제조업에 이어 의약품 위탁생산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또 아직 코로나백신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경우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술수준을 알아보고 백신 기술개발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시켜주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수준과 앞으로 사용될 m-RNA 백신 개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앞으로 9월 중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m-RNA 백신 개발이 곧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었다. 대구시장의 화이자 백신 3천회분의 공급 체결에 대한 해프닝에 대한 화이자 본사와의 확인으로 사실 여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어처구니없는 대구시장의 화이자 공급 자체 계약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백신 공급에 대한 정부의 준비와 물량확보에 대한 불안감은 많은 국민들을 흔들리게 하였다. 정부는 백신 공급과 관련한 뜬소문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는 일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으면 한다. 충북 진천군의 백신접종센터 현장도 취재하였는데, 6월까지 총 500만회분의 백신이 주 단위로 공급된다는 정보를 설명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아이টে은 전 국민의 관심사로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 여부를 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국민들에게 현장취재를 통해 확신을 주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또 우리 기업의 현장 취재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백신 개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종식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모습을 전하여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6. 13.	시청률	0.043

【총 평】

<우리동네 개선문> 68회에서는 주민 불편 사항이 민원으로 제기된 후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솔루션을 주민과 함께 모색해 만족도 높은 해결방안을 찾았다는 내용의 정읍시와 아산시의 위민 행정 수범사례가 소개되었다. 두 자치단체 모두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도출해낸 사례로 기초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책알림이, 정보제공, 자치단체 신뢰감 제고와 소통행정 효과 등 순기능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정책방송의 정체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이번 방송에서는 정읍천 친수공간 조성 이후 보행환경 등의 민원발생에 대응한 정읍시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음에도 적합한 대중교통 체계 미비로 인한 대응책을 마련한 아산시의 사례를 전해주었다.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천은 정읍시민들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다. 정읍천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읍천 제방 3구간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민들 산책로가 중첩되어 있어 충돌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농로를 미조성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로 농기계가 진입하여 사고 위험성이 발생한다.

이에 정읍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시설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 옆에 산책 데크길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철 농지의 진출입 농기계를 위한 농로를 추가 개설하기로 하였다. 충남 아산시의 둔포면은 5,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며 신도심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었음에도 그에 걸맞는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이나 아이들은 한참을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둔포면의 학생들은 시내 소재 고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데 통학시간만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특히 버스를 이용시 구도심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도보로 30분 가량 걸어가야 한다. 더불어 구도심은 최근 신도심과의 괴리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신도심 인구가 구도심 상가로의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아산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도는 순환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순환버스의 운용이 아직 배차간격 등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 향후 차츰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솔루션을 찾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현장에서 밀착 취재하는 구성이 현장감과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수용자인 주민에게는 민원제기로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정보제공 역할을, 일선 자치단체는 위민행정에 대한 정책알림이 역할을, 다른 행정기관에는 수범사례 전파를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